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6 ~ 1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6	사찰의 비밀	지현	담원북스
2	인생수업	법륜	휴	7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불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8	깨달음은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종영 외 4인	운주사
4	힘이 없이 하는 도리(한영환본)	대행	한아름출판사	9	리셋	윤희	마음의숲
5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김영사	10	빅 마인드	테스 겐트	정신세계사



## ‘대승’이란 중생들의 마음

대승기신론  
지안 스님 강해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 즉 나를 알려 주는 공부”가 ‘불교공부’이다. 이러한 불교공부의 지침을 제시하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대승기신론>이다. 중생들의 마음을 대승이라 선언하고 이 마음에 대하여 논리 정연한 설명을 해준다. 즉 마음은 무엇인가, 그 정체에 대해 가장 차원 높은 이론적 설명을 가해 놓은 책이 <기신론>이다. 책은 저자인 지안 스님이 7년 전에 <기신론> 공부를 위한 교재로 출판했던 <대승기신론 강해>의 개정판이다.

인도 스님 마명이 지었다고 알려진 <대승기신론>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한역본이 유통되고 있다. 진제 스님의 역본과 실차난타 스님의 역본 중 진제 스님의 한역본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로 불리고 있다.

<대승기신론>을 번역, 해설한 지안 스님 <사진>은 <대승기신론>을 경전보다 먼저 읽어야 할 책이며, 불교공부를 위한 ‘표준 교과서’라고 말한다. 이는 간결하고 논리

정연한 설명을 통해 대승(大乘)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승기신론>은 모든 중생을 실어 열반으로 운반해주는 큰 수레, 즉 ‘대승’이 참된 이치를 깨닫고,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나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것이 지안 스님이 수많은 불교서적 가운데 <대승기신론>의 일독을 권하는 이유다. 특히 이 책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기신론>을 임의로 문단을 나누고 번호를 매겨 강해한 한문 원전의 난해함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 불교에 입문했으나 그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불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신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이다. 물론 오행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권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육자(六字)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일심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또한 일심이 가진 특성을 체(體), 상(相), 용(用) 삼대의 이론으로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대승에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며, 나아가 실천적 행을 따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의 법을 생각하고, 부처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항상 친하게 하고 가까이 하여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법에 큰 이익이 있



‘불교공부’ 지침 제시하는 ‘교과서’  
“경전보다 먼저 읽어야 할 책”  
대승사상 종합적으로 다룬 최고 논서  
중관·유식·여래장 종합해 논해

음을 받고 항상 온갖 바라밀을 수행할 것을 생각하고, 승보가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스스로 이롭게 하며, 남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보살들을 친하게 하고 가까이 하여 실다운 행을 배우는 것, 이것이 네 가지 믿음이다.”

위의 내용은 ‘수행신심분’에 설해져 있는 ‘사신’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신론>을 지으면서 인연본, 임의본, 해석본, 수행신심본, 권수이익본의 5분으로

로 눈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5분으로 설해지는 <기신론>의 내용은 대승의 근본 대의를 밝히는 동시에 대승불교사상의 양대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을 포함하여 여래장사상까지 종합하여 논하고 있다. 특히 특정 경전에 대한 한정된 논술이 아닌 대승의 사상을 종합하여 논했다는 점은 <기신론>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능가경>의 내용을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어 <능가경>의 별신서(別新書)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기신론>처럼 대승의 대의를 포괄해 논한 논서는 드물다.

역자인 지안 스님은 “근래에 서구에서는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신을 찾아가는 타 종교와는 달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불교의 특징이 탈종교화 시대인 오늘날의 정서에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문명의 위기 속에 인간의 심성이 파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의 참된 성품에 대한 불교의 설명을 듣고 나면, 자기의 삶을 바로 음미하여 새로이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자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며 “수많은 불교서적 가운데 이 <대승기신론>은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우선은 대승불교의 이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이고, 다음으로는 이 책을 읽은 인연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대승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아울러 바라고 있다.”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 한 잔 차에 하늘과 땅의 위대함이

중국 다도 수련법 기초 차식  
유위웬즈 저음 | 김태연 옮김 | 조음 펴냄 | 1만4천원



중국 다도 수련법으로 만든 기초 차식을 소개한다. 기초 차식은 단순히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경지를 체험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반성하게 하여 더욱 완벽한 자아를 만들어 가는 수신의 과정이라고 소개한다.

중국에서 차는 전통문화와 결합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간직한 ‘다도(茶道)’라는 문화를 탄생시켰다. 다도란 사람이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의 결정체로 차의 참맛을 깨달을 뿐 아니라 차의 미적 인성화를 거쳐 결과적으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차를 맛보고 음미하며 더 나아가 차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과정은 차를 우려고 마시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다도를 통해 인문학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차’는 중국인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가 되었다. 중국 문인들이 거문고, 바둑, 서예, 그림과 더불어 차를 즐겼고, 고승들의 차선일미와 중국인들의 생활필수품 일곱 가지인 개문칠건사에도 포함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천 년간 각각의 방법으로 차를 즐겨왔다. 그리고 그들은 차를 통해, 차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모색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차를 통해 도를 깨치고자 했다. 도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다도 역시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도는 단순히 탁상공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차를 우리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세상에 수많은 마실 거리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차만이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단순한 기호음료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차는 그 종류에 따라,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따라 우리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기본 원칙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저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중국 다도 수련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식은 단순히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지를 체험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반성하여 더욱 완벽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수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책이 소개하는 기초 차식은 시연용과 수련용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만 안심을 한다. 그렇게 정보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삶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장자가 “행하니 빈방이지만 환하게 밝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이는 방을 비워야만 밝음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한 것이자 한 잔의 차로써 우리 마음의 방에 가득 찬 우매함을 비워내는 한결기 맑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잔에는 하늘과 땅의 위대함이, 차호에는 해와 달의 이치가 들어 있다고 했다. 몇 가지 다도구를 꺼내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차로써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우주가 열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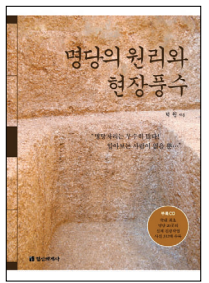
다도란 ‘차의 미적 승화 거쳐 인생에 대한 깨달음 얻는 과정’  
단순 ‘음료’로 생각할 수 없어  
‘기초 차식’은 수신의 과정

이 작은 우주에서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성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저자는 “다도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차를 우려보세요.”라고 대답한다. 그는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자주 우려보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차를 우려며 접하는 다양한 느낌은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은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청복(淸福)’이다. 그러나 이 청복을 누리려면 우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습을 통해 터득한 특별한 감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중국에서도 정성을 다해 한 잔의 차를 우리는 것을 ‘공부(功夫)’라고 한다. 박재완 기자

## ‘명당’이란 무엇인가

명당의 원리와 현장풍수  
덕원 저음 | 정신세계사 펴냄 | 3만원



<명당의 원리와 현장풍수>는 진짜 명당의 원리를 공개하고, 자연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던 선인들이 지은 사찰과 서원들을 찾아 그 배치를 살피도록 명당의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또한, 잘못된 풍수지리 개념들을 바로잡고, 혈을 찾는 심혈법의 응용법과 현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장묘문화의 건강한 대안을 제시한다.

“풍수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자연과 합일한 마음이며, 그로써 터득한 기감으로 진혈(眞穴)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풍수가들이 자연의 기운을 보지 못하니 자꾸만 주역의 일부가 보태지고, 오행이 보태지고, 패적이 보태져서 풍수지리가 난해한 학문 또는 미신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흔히 말한 명당은 이미 다 썼다거나 명당이라고 믿으면 그 자리가 곧 명당이라고 말할 하지만 심혈법(心穴法)으로 보면 명당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도 우리 주변에 무수

히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의 1부 ‘명당의 형성 원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풍수이론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진짜 명당의 원리를 공개한다. 저자는 “지금껏 풍수가들이 신봉해온 풍수이론을 잘 들여다보면 뜻이 모호하거나 왜곡된 채로 전해진 내용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엄연히 땅의 규모와 성질이 다른데 중국의 상황을 우리 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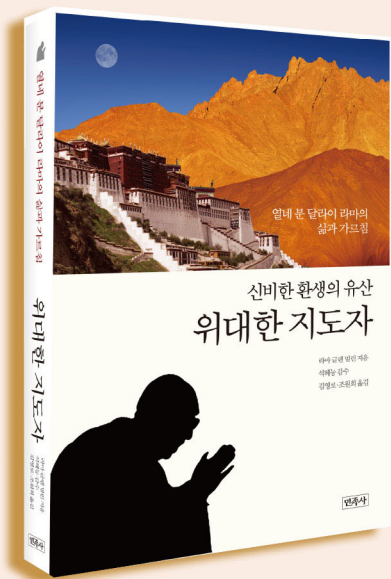
2부 ‘사찰명당 및 서원명당’에서는 자연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던 선인들이 지은 사찰과 서원들을 찾아 그 배치를 살피도록 명당의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3부 ‘기존 풍수관 바로잡기와 사례 분석’에서는 각 개인은 물론 한 국가까지 잘못된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잘못된 풍수지리 개념들을 바로잡고, 4부 ‘심혈의 응용과 새로운 장묘문화’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혈을 찾는 심혈법의 응용법과 현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장묘문화의 건강한 대안을 제시한다.

5부 ‘우리 자연에 맞는 장경’에서는 그동안 곁길기 수준으로만 번역되고 이해되어왔던 <장경(葬經)>을 속뜻까지 풀이하여 풍수가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짚었으며, 부록 CD에는 국내 최초로 실제 명당 20곳의 천광작업 사진 312매를 수록함으로써 풍수를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환생 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그 신비 속에서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 본다

최초로 1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삶과 가르침, 고뇌를 담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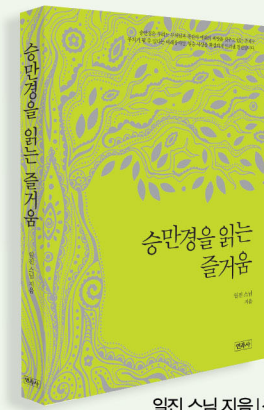
# 신비한 환생의 유산 위대한 지도자

- 1대 달라이 라마 -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2대 달라이 라마 -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실현
- 3대 달라이 라마 - 파드마 썸비와의 예언
- 4대 달라이 라마 - 칭기즈칸의 후예
- 5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의 정신적·세속적 지도자
- 6대 달라이 라마 - 자유로운 생활과 사랑의 노래
- 7대 달라이 라마 - 하상 칸의 박해를 피해서
- 8대 달라이 라마 - 불안한 시대
- 9대로부터 12대까지 - 달라이 라마들의 요절
- 13대 달라이 라마 - 가장 도전적인 삶
- 14대 달라이 라마 - 인도로의 탈출

리마 글렌 말린 저음  
석해는 김수  
김영로 · 조원희 옮김  
신국문 | 482쪽 | 값 23,500원

##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문운사 일진 스님이 간간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설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저음 | 신국문 발행 | 312쪽 | 값 15,000원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번역가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문운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